

秋史의 濟州流配漢詩

梁 淳 秘

目 次

I. 序 論	3. 朝鮮朝의 流刑
II. 本 論	4. 作品 考察
1. 時代的 背景	III. 結 論
2. 作家考	參考文獻

I. 序 論

秋史 金正喜(1786~1856)는 博學했기에 그의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셈이다. 秋史體를 완성한 書藝家로서의 位置 金石學者로서의 位置, 朝鮮期 후기에 實用·實證·實効 등의 기본방향으로 고유문화의 자각적 인식을 전개한 實學運動家로서의 位置 등등으로 考究되어지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文學的 位置는 아직도 本格的으로 考究되어지고 定立되어 있지 않는 성싶다. 최근에 筆者가 이 점에 留意하여 그의 文學을 연구해 왔으나 아직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해 本格的인 연구의 전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¹⁾

本稿에서는 秋史가 憲宗 6年(1840) 9월에 尹尙度의 獄事에 연좌되어 濟州島 大靜縣에 圍籬

1) 拙稿, 秋史의 悼亡詩·祭文攷, (廣場) 제 73호, 世界平和教授協議會, 1979.6.25.

流配人이 濟州文化에 끼친 影響, 제주도, 제 75호, 1979.8.18.

秋史의 歲寒圖 題文攷, 제주도, 제 76호, 1979.12.30.

秋史의 濟州流配書翰攷, 아카데미論叢, 제 7집, 世界平和教授協議會, 1980.1.30.

秋史의 悼亡詩와 祭文考, 玄平孝博士回甲論叢, 1980.9.24.

李丙曠 阮堂先生の 經術文章과 歲寒圖, 東國大教育大學院, 제 2회 學術세미나야, 1980.10.26.

拙稿,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詩簡攷, 語文研究, 제 27호, 1980.10.30.

安置되어²⁾ 이른바 ‘荒寒寂寞之濱’에서 9年間 流配生活을 체험한 流配地에서 겪은 精神的狀況을 그려준 流配漢詩를 중심으로 그의 流配文學의 展開를 試圖하려는데 그 意圖가 있다.

對象資料는 流配地 濟州島 大靜縣에서 創作되어진 것으로 確實히 推定되는 流配漢詩 10篇으로 限定하여 試考를 전개키로 한다.

II. 本 論

1. 時代的 背景

1) 政治的 背景

秋史는 憲宗 6年(1840) 9월에 尹尙度의 獄事에 연루되어 濟州島 大靜縣에 유배를 당했는데 그 때 나이 55歲이었다. 그는 人生의 黃昏期에 梟囚罪人³⁾으로 9年間 유배생활을 겪었는데, 配所에서 亡妻喪을 당하는 기막힌 悲運을 체험했는가 하면, ‘荒寒寂寞之濱’에서 周甲年을 맞이하는 生의 虛無에 번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왜 9年間이나 絕海孤島인 遠惡地 濟州島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그럴 만한 時代的 背景이 있었다.

英祖 후기에 들어서자 戚族一門의 政權壟斷이 시작되어 이른바 세도정치가 跋扈하게 된다⁴⁾ 따라서 성리학은 명목상의 지도이념일 뿐, 이미 현실과는 유리되어 있는 형편이었으니 학문 자체가 공허화하게 되고 禮論은 형식만 남아서 허허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知識人間에는 반성과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實學運動이다. 그러나 執權層의 일부 新銳한 子弟間에는 性理學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고, 淸國에서 새로 일어난 考證學을 받아들여 기본적인 改革을 시도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른바 北學派인데 國政刷新을 꿈꾸던 正祖의 후원으로 차츰 성장하여 갔다.

이와 같은 시대에 秋史는 勳戚家門의 하나인 慶州金門에서 탄생했다. 그의 집안은 7代祖 弘郁이 孝宗 5年(1654)에 黃海道 觀察使로서 姜嬭獄事에 바른 말로 상소하다가 杖殺됨으로써 名臣이 된 이래 勳戚家門으로 등장하여는데 그의 高祖 興慶는 領議政을 지냈고, 曾祖 漢蓋은 英祖의 장녀인 和順翁主와 結婚하여 月城尉에 피봉되었다.

한편, 7代祖 弘郁의 자손으로 그의 조부와 10촌 兄弟間인 貞純王后 金氏가 英祖의 繼妃가 됨으로써 秋史의 집안은 내외로 중복된 宗戚家門이 된다. 이러한 집안에 秋史는 吏曹判

2) 憲宗實錄 卷 7 6年庚子 8月條 ‘鞫囚罪人正喜 大靜縣圍籬安置’ p.477.

3) 李鍾恒, 韓國政治史, 博英社, 1963, p.330. 參照.

書 魯敬과 杞溪俞氏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 伯父인 禮曹參判 魯永에게로 出繼하여 月城尉의 奉祀孫이 된다. 곧 慶州金門의 중심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純祖 19年(1819) 문과에 급제하자 純祖는 月城尉의 奉祀孫이 급제한 것을 기뻐하여 賜樂을 내리고 丞旨를 보내어 月城尉 內外廟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성의를 보일 정도이었으니, 그의 집안이 王室至親으로 얼마만큼 權貴를 누리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同宗인 貞純王后 집안은 勢道 다툼인 時·僻의 당쟁에 僻派의 중심으로 진퇴를 거듭한다. 正祖 때에 와서는 이른바 時·僻으로 대립하게 되는데, 時派는 思悼世子의 죽음을 원통하게 여기는 派요, 僻派는 이에 반대한 派를 말한다. 僻派는 老論이 많고 時派에는 少論과 南人들이 이에 동조하였다.⁴⁾

秋史가 출생하던 正祖 10年(1786) 바로 그 해에 貞純王后의 오라비며 僻派의 首長이던 金龜柱가 유배지에서 죽고, 일시 침체했었으나 純祖初에 貞純王后가 垂簾聽政을 하게 되자 다시 勢道를 잡게 된다. 그러나 貞純王后의 薨去를 계기로 純祖의 처가이며 時派의 중심이던 戚族 安東金氏에 의해서 貞純王后 6촌친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화를 입는 철저한 숙청을 당한다. 이러한 狀況에도 秋史의 집안은 비록 貞純王后의 親庭家門이로되 時·僻의 黨爭에 초연했고 王家의 외손으로 더욱 가까웠던 관계로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翼宗의 代理聽政을 계기로 翼宗의 처가인 豐壤趙氏가 勢道를 잡고 이에 秋史 집안이 가깝게 된 것이 빌미가 되어 익종 사후에 제차 세도를 잡은 安東金氏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秋史의 생부 魯敬이 朴宗蕪 申緯 등을 誣告했다는 尹尙度獄의 배후 조정 혐의와 翼宗의 代理聽政時에 權臣 金鰲에게 아부하고 익종 國婚時에 이를 방해했다는 罪目으로 巨濟島에 유배된다.

이러한 모든 혐의는 실상 증거가 없는 정치극이었으니 純祖의 특별 배려로 魯敬은 3년만에 放釋되어 判義禁使로 복직되고 秋史도 兵曹參判, 成均館 大司成의 벼슬에 오르는 등 다시 權貴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純祖가 돌아가고 나이 어린 憲宗이 즉위하여 純元王后 金氏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 安東金氏의 세도가 극에 이르자 安東金氏에서는 撤簾後에 憲宗의 외가인 豐壤趙氏에게 흑시 세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對豐壤趙氏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책으로 다시 秋史一門을 강타하게 되는데 이 때 純元王后의 再從兄인 大司憲 金弘根이 직접 나서서 10년전의 尹尙度獄을 再論하여 魯敬의 관직을 追奪하고 秋史를 사지로 몰아 넣는다.

곧 時·僻의 싸움에서 僻으로 몰린 셈인 것이다. 그러나 豐壤趙氏의 수장이며 同榜 친구인 趙寅永의 도움으로 秋史는 겨우 救命되고 濟州島 大靜縣에 유배되어 9년간을 보내게 되

4) 成樂黨, 韓國政党史, (韓國文化史大系 II),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pp.381~382.

는 것이다.⁵⁾

2) 文化的 背景

秋史의 文化的 背景을 그의 思想性을 바탕으로 한 그의 天學, 禮學, 그리고 理學克服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① 天學

儒學은 본래 先秦儒學·漢學·宋明學·淸學 등으로 구분된다. 秋史는 漢儒들이 經傳訓詁에서 모두 師承이 있어 지극히 精과 實을 갖추었다 하고, 訓詁에 정밀하나 訓詁는 입문이요, 董仲舒·鄭玄을 대표로 하며, 오로지 독실하고 근엄한 것으로 법도를 삼아 공허한 것을 밟지 않고, 고원한 곳으로 치달리지 않아서 三代之 전형이 거의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대체로 本實에 독실하여 걸만 꾸미는 것을 부끄러이 여겨 하는 일에 돈독하였다. 그러나 兩宋儒者는 공허한 것을 되풀이 하여 유교로 하여금 불교를 끌어 들였다. 晉宋이후의 학자들은 높고 먼 것으로써 孔子를 존경하여 성현의 가르침은 이와같이 알고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까닭에 宋나라 眞儒는 그 근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방법을 상세히 말해 더욱 넓어지게 되고, 미세한 것에 대한 분별과 제목에 대한 논쟁은 그 차이가 털끝 만한 것에 이르게 되었다. 미처 百年도 채 못 전하고 分立하여 길을 달리하였으며, 내려 오면서 입과 귀로만 서로 통하는 습관이 되어, 줄거리들은 실물치보다도 더 심하게 열크러졌고, 末流일수록 더욱 가지가 많아졌다. 지금 글 읽고 理를 말하는 선비들은 공허한 말을 마음에 품고 길을 잃어버렸다. 세월을 다 보내고도 돌이키지 못하면서 또한 이 일을 놓지 못하고, 늙는 줄도 모른다. 이른바 實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란 놀라울 정도로 이미 잃어버렸다고 단정하여 이렇게 宋學의 Scolar 化를 비판한다. 그러나 漢儒는 經傳을 訓詁하되 모두 師承이 있어서 지극히 정밀하고 확실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으로 미루어 본다면 宋學은 空虛迷途 혹은 枝脚이 많아 支離하였고, 漢儒는 「備極精實」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三代之學, 皆以實也」라 한다. 그의 價値判斷의 기준은 實이나 虛이나 이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주장은 그의 「實事求是說」에 있는 것이다. 「漢儒家法說」에서는 그의 근본인 「天學」을 引據하고 있다. 「漢儒의 家法은 대략 세가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첫째는 守師說이요, 둘째는 通小學이며, 셋째는 「明天人之理」라 하였다. 「天人의 理를 밝힌다고 함은 易家의 天學이다 하고 書家의 伏生처럼 洪範으로써 天을 설명하였고, 詩家의 翼奉처럼 五際로써 天을 설명했고, 春秋家의 董仲舒처럼 公羊春秋로써 天을 설명했고, 劉向은 穀梁春

5) 崔完秀, 金秋史評傳, 知識産業社, 1976. 參照
石井壽夫, 李朝後期黨爭史についての考察, (社會經濟史學), 1940.

秋로써 天을 설명하였으며, 劉歆은 左氏春秋로써 天을 말하였다.]」⁶⁾ 하고 결론에서 그는 「家法이 精하면 경학이 밝으나, 가법이 폐기되면 경학이 폐지된다. 삼가 주고 받아 옥경을 갈고 닦으니 가법이 孔子書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였다.]」⁷⁾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漢儒의 가법인 天에 대한 탐구란 공자정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秋史의 「精實」이란 한유처럼 공자의 「天學」을 밝히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② 禮學

秋史는 「聖學이란 禮學이다」하고, 「理學은 孔學이 아니다」하였으며, 論語는 대양 禮를 설명하였으나 理는 한 마디도 말한 바 없었다고 한다.

寒岡 鄭述과 明齋 尹拯 등은 禮學과 理學은 일치한다고 하였으나 程朱의 전통은 禮와 理의 일치, 곧 理로서 禮를 설명한 것이지만, 秋史는 理學으로부터 禮學을 독립시켜서 禮天學의 具體化가 禮라 생각하였으며, 禮로써 理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의 「禮堂說」에 의하면 「저 佛敎는 心을 주장으로 말하고 性을 말하되 깊이 미묘함을 다하여 마침 賢知한 이의 허물이 되었으니, 聖人の 道는 이와같지 않다. 그 節心이란 禮요, 멀리 천지에 앞선 것을 찾지 않는 까닭이며, 그 節性이란 또한 禮일 뿐이다. 저 理氣의 辨으로 말을 옮기지 않은 까닭이다.]」⁸⁾ 하였으니 節心과 節性이란 모두 禮이며, 形而上 혹은 理氣가 아니라 한다.

「後儒들은 저 釋氏가 心을 말하고 性을 말함이 그 幽深微渺함을 다했다고 익히 듣고는 왕왕 두려워하고 聖人の 道가 그 같지 못하다고 부끄러이 여겨 이에서 그 주장을 가만히 취하고는 조금씩 바꾸어서 聖人の 遺言을 천착함으로써 『우리 聖人도 본래 이미 이 깊숙한 미묘한 경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이것을 배척하되 『저들이 心으로써 性이라 함은 우리네가 理로써 性이 된다는 것보다 못하다』고 한다.

아 슬프다. 이로써 성인의 도를 높리게 된다 하나, 마침 성인을 알보는 까닭인 줄 모르며, 이로써 이단을 배척한다 하나 속으로 이단에 들어간 줄을 모른다.]」⁹⁾

이것은 宋學의 이단성을 지적한 것으로써 송학은 이미 불교에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불교에 오염된 理學으로부터 유학의 독자성을 천명하려는 것이 그의 천학이요 예설이다. 성인의

6) 阮堂先生全集, 漢儒家法說 ‘明天人之理, 易家天學…… 書家如伏生則以洪範言天, 詩家女翼奉則以五際言天, 春秋家如董仲舒則以公羊言天。 劉向則以穀梁言天 劉歆則以左氏言天’

7) 阮堂先生全集, 同上 ‘家法精。經學明家法棄 經學廢 謹授受研六經 家法不失孔書 乃明是爲說’

8) 阮堂先生全集, 禮堂說 ‘彼釋氏者流 言心言性 極於幽深 微渺適成, 其爲賢知之過 聖人之道不如是也 其所以節心者禮焉爾 不遠尋夫天地之失也 其所以節性者亦禮焉爾 不務談夫理氣之辨也’

9) 阮堂先生全集, 同上, ‘後儒熟聞 夫釋氏之言心言性 極其幽深微渺也 往往佈之 愧聖人之道, 以爲弗如 於是窃取其說而小變之 以擊聖人之遺言曰 吾聖人固已有此幽深微渺之一境也 復從而闢之曰 彼之以心爲性 不如我之以理爲性也。 嗚呼以是爲尊聖人之道 而不知適所以小聖人也。 以是爲闕異端而不知 陰入於異端也’

도는 예에 근본하여 말한 것이며, 實을 본 바가 있었다. 이단의 도는 예를 제외하여 말한 것이요, 空하여 의지할 곳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공자의 「詩書執禮」, 「克己復禮」, 「四勿」 「約我以禮」 등등 「聖人は 예를 버리고 가르칠 것이 없고, 賢人は 예를 버리고 배울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聖人は 이를 理에서 구하지 않고 예에서 구하였다」¹⁰⁾고 하였다.

그런데 「後儒들은 살피지 못하고, 곧 예를 버리고는 論을 함부로 極幽深微妙한 데에 세우나, 모두가 釋氏의 학이요, 聖學이 아니다.」¹¹⁾ 하여 극렬하게 理學을 배척한다. 「대저 논어는 성인의 유서이다. 성인의 유서를 말할 때 반드시 늘 말하는 바의 예를 버리고 일마다 말하지도 아니한 理에 附會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성인의 본뜻이겠는가. 後儒의 학은 혹 釋氏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더욱 이치에 가까울수록 크게 참된 것을 어지럽게 한다. 성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성학은 禮이다. 理를 말하지 아니 한다. 그 도는 바로 서로 반대가 되니 어찌 근사하다 하여 참된 학문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¹²⁾

공자의 근본을 전하는 논어는 예에 관한 것은 많지만 理에 관한 것은 전혀 없다. 따라서 聖學은 禮學이며 理學이 아니다. 理學이란 불교에서 나왔고 불교의 理에 의하여 유학을 해석한 이단이다. 秋史는 性理學을 이단으로 몰아치면서 原始儒學의 예교성을 강조하여 堯舜周孔의 原義에 歸一할 것을 주장했다. 그가 「禮는 聖學이다」한 것은 天學에서 나온 것이며, 天과 禮는 本原과 實踐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하겠다.

③ 理學克服

秋史는 儒學의 獨自性을 천명하기 위하여 理學의 이단성을 지적해야 하였다. 유학이 자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 일이었다. 그래서 秋史는 理로써 學을 삼고, 도로써 전통을 삼으며, 心으로써 宗을 삼아 이것을 아득한 곳에서 탐구하고, 이것을 먼 곳에서 찾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六經에서 구하는 것과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理學·心宗을 벗어나 육경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理學이라는 理字란 訓義와 어긋난 것이므로, 字義로부터 규명한다. 「理文辨」에서 그는 「聖人の 마음은 渾然한 一理라 하는데, 이 뜻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다. 淺學輩가 가볍게 설명할 것이 못된다. 응당 먼저 理字가 어떤 뜻인지 정해 놓은 후에 곧 적확할 것이다. 공맹으로부터 理字란 오직 文理·條理·義理 등 몇마디 말뿐인데, 주자는 『理는 情意와 計度 및 조작이 없으며, 다만 하나의 淨潔한 空闊한 세계요, 형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도리어 작용하지 않는다 하니, 만약 이 뜻으로써 본다면 聖人の 마음은 理로써 究證해야 하니, 차라리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10) 阮堂先生全集, 同上 '聖人不求諸理 而求諸禮'

11) 阮堂先生全集, 同上 '後儒不察 乃舍禮而論立 縱極幽深微妙 皆釋氏之學 非聖學也'

12) 阮堂先生全集, 同上 '夫論語聖人之遺書也 說聖人之遺書 必欲舍其所恒言之禮 而事事附會於其所未言之理. 是果聖人之意耶 後儒之學 或出釋氏故 謂其言之亦近理而大亂眞 不然 聖學禮也. 不云理也 其道正相反 何近而亂眞之有哉'

또 혹은 理字에 다른 뜻이 있어서 혹은 天이라 하고, 혹은 性이라 하지만 性과 天의 뜻과는 또 서로 통하지 않고 막히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理字說이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제 傳注가운데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인용하고 가볍게 말한 것이 옳을까」¹³⁾ 이처럼 주자의 理字訓義가 本義와 맞지 않다 하고 개념의 혼란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의 「格物辨」 또한 字義를 바로 잡고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格物의 格은 「止」인데, 程朱는 「格은 至다」하고, 王陽明은 「格을 正이다」한다. 그러나 「爾雅廣詁」에는 「格은 止다」하였고, 「事는 傳요, 傳는 立이다」하였다. 또 「太極郎北極辨」에서는 宋儒들이 「太極即是理」라 하였는데, 太極은 北極이다. 「太極은 곧 太一이요, 太一은 곧 北辰이며, 北辰은 곧 北極이다. 易繫辭에 易有太極하니, 이것이 兩儀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으며, 四象은 八卦를 낳았다고 한다. 까닭에 八卦는 四時에 근본하고, 四時는 天地에 근본하며, 天地는 太極에 근본하니 太極은 곧 北極이다」¹⁴⁾ 하였으며 이것은 鄭玄이 乾鑿度의 注에서 「太一은 北辰의 神名이다」고 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주자는 또한 太極을 논하여 『造化의 樞紐요, 品彙의 根抵라』 하였다. 주자가 논한 太極의 뜻은 일찌기 북극에 미치지 못하였다.」¹⁵⁾고 지적한다.

그는 認識問題에 있어서 경험론을 취한다. 格致란 자신이 체득하고 사물에서 경험할 뿐이라는 것이 그것이며 實事求是란 바로 경험론인 것이다. 「私蔽辨」에서 사람의 근심은 私蔽라」하면서 「蔽란 이를 사정에서 구하지 않고, 그의 주관으로써 민기를 의리라 한다」하였는데 사정 곧 실사·실정에 구하지 않고, 즉 실사구시하지 않고서 먼저 자기의 의견을 세워서 의리라고 믿은 것, 곧 性理學派이다. 따라서 「求諸事情」이란 또한 경험론적이니 이는 바로 성리학의 관념론과 대립하는 것이다.

그의 사관이 담겨 있는 「學術辨」은 「학술은 수 백년이 지나면 반드시 변모한다」고 전제한다. 漢의 경학은 魏晉의 玄學으로 변하고 隋唐의 五經訓詁學은 宋明의 성리학으로 변하였으며 清代에 성리학을 반대한 기풍이 일어났지만 아직 古訓에 모두 함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임할 바를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성리학은 극복될 기운이 이미 익어 가고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사구시라는 방법에 의하여 원시유학의 참 정신을 규명하고 유학의 근본정신을 올바르게 재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13) 阮堂先生全集, 理文辨 ‘聖人之心 渾然一理 此義最難理會, 非淺學輩所可輕易下說也 當先定理字之爲何義然後乃可的確, 孔孟以來理字云者 惟文理 條理 義理等數語而已 朱子曰 理無情意計度造作 只是個潔淨空闊底世界 無形迹 他却不會造作 若以此訓看之 聖人之心 以理究證 寧不難言而難曉也 又或有理字之他訓 或曰天曰性而性天之義 又互相望 礙難曉焉 所以此說之極難理會也 今以左傳注中而妄引經說可乎’

14) 阮堂先生全集, 太極即北極辨 ‘太極即太一 太一即北辰 北辰即北極 易繫辭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然則八卦本乎四時 四時本於天地 天地本於太極 太極即北極也’

15) 阮堂先生全集 同上 ‘造化之樞紐 品彙之根抵 朱子所論太極之旨 未嘗及於北極’

2. 作家考

前述한 時代의 背景에서도 秋史의 생애가 약술되었지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年譜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秋史는 正祖 10年(1786) 丙午 6月 3日 忠淸道 禮山郡 新岩面 龍宮里 鄉第에서 酉堂 金魯敬의 長子로 출생했다. 그의 字는 元春, 號는 秋史, 阮堂, 禮堂 등 무려 2백이 넘는 款識를 호사롭게 썼다. 本貫은 慶州이다.

正祖 24年(1800) 庚申에 實學派의 朴齋家에게 師事했고, 純祖 6年(1806) 丙寅 2月 12日 初娶夫人 韓山李氏의 喪을 당하였다.

同王 9年(1809) 己巳에 生원시에 급제하고, 父 酉堂이 使節로 燕行하자 四方之志를 겸해 수행, 거기서 당대의 鉅儒와 交契, 職見을 넓혔다. 곧 少壯인 曹江을 통해 翁方綱과 樹培·樹崐 3父子를 비롯하여 吳嵩梁, 그리고 阮元, 劉喜海·葉志銑 등과 사귀어 經術文章 海東第一의 기림을 받았었다.

同王 16年(1816) 丙子 7월에 金教淵과 함께 北漢山逕狩碑를 발견했고, 實事求是說을 발표했으며, 同王 19年(1819) 己卯 4月 文科에 급제하였다. 閏 4月 1日 純祖의 賜樂을 입어 月城尉廟에 致祭한다.

同王 20年(1820) 庚辰 10월에 翰林召試에 합격하고, 同王 23年(1823) 癸未 8월에 奎章閣待教가 되었다. 同王 26年(1826) 丙戌 6월에 忠淸右道暗行御使가 되었고, 12月 27日에 生父 魯敬의 回甲을 맞는다.

同王 27年(1827) 丁亥 5월에 議政府 檢詳에 임명, 10월에 禮曹參議가 되었으며, 同王 29年(1829) 己丑에 平壤 高句麗城壁 石刻을 발견, 內閣檢校待教兼 侍講院輔德에 재직하였다.

同王 30年(1830) 庚寅 8月 27日 副司果 金遇明이 翼宗 代理聽政時 權巨金鸞에게 아부했다 하여 魯敬을 탄핵하자 尹尙度獄이 일어나 9月 11日 兩司가 합啓하여 阿附專權, 沮戲國婚 등의 罪目으로 탄핵을 당하여 魯敬은 10월에 古今島에 유배당하였다.

同王 32年(1832) 壬辰 2月과 9월에 두 차례 걸쳐 秋史는 生父 魯敬의 冤訴를 상소하여 이듬해 魯敬의 放釋을 보았다.

憲宗 1年(1835) 乙未 12월에 草衣 意恂과 친교를 맺었고 同王 2年(1836) 丙申 4월에 成均館大司成이 되었고, 7월에 兵曹參判에 임명되었다.

同王 3年(1837) 丁酉 3月 30日 生父 魯敬의 喪을 당하였고, 同王 4年(1838) 戊戌 8월에 草衣의 주선으로 小癘 許維를 알게 되며, 同王 5年(1839) 己丑 5월에 刑曹參判에 임명되었다.

同王 6年(1840) 庚子 6월에 冬至副使에 임명, 7月 10日 尹尙度獄의 再論으로 魯敬 탄핵, 7月 11日 秋史 兄弟刑去, 7月 12日 魯敬 追削, 8月 11日 尹尙度 父子 凌遲處斬 8月 20日 秋史掌捕, 9月 2日 右議政 趙寅永의 도움으로 減死되고, 濟州島 大靜縣에 圍籬安置가 된다.¹⁶⁾

同王 7年(1841) 辛丑 2月과 6月 두 차례의 小癘의 來訪을 비롯해 유배생활 동안 수차례의 來訪이 있었다. 同王 8年(1842) 壬寅 11月 13日 夫人 禮安李氏의 喪을 당하여 悼亡詩 ‘配所輓妻喪’과 祭文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을 쓴다.

同王 9年(1843) 癸卯 白坡와 왕복 토론.

同王 10年(1844) 甲辰 右水使 申觀浩에게 小癘를 소개하고 ‘歲寒圖’를 제작하는가 하면 同王 12年(1846) 丙午 6월에 유배지에서 流刑囚의 몸으로 周甲을 맞는다.

同王 14年(1848) 戊申 12月 6일에 放釋되고 이듬해 歸京한다. 哲宗 2年(1851) 辛亥 7月 禮論是非로 威鏡道 北靑에 유배당하다가 이듬해 放釋된다.

同王 7年(1856) 丙辰 10月 10日 71歲로 卒한다.

3. 朝鮮朝의 流刑

流刑은 重罪를 범했을 때에 차마 刑殺까지는 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유배 보내어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¹⁷⁾

朝鮮朝의 流刑에는 반드시 杖刑을 併科하였고 杖一百을 쳐서 二千里의 먼 곳으로 귀양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二千五百里와 杖一百, 三十里와 杖一百의 三等級이 있고 每 五百里마다 刑一等이 加減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規定대로 시행하기에는 불합리하여 지리상 流三千里의 刑은 執行이 불가능하므로 罪人의 居所를 표준으로 하여 流刑의 等級에 따라 일정한 지방을 지정하여 그 곳으로 귀양 보내는 등 실정에 맞도록 처리하였다.

二千五百里 三千里 등의 刑規定은 국토가 넓은 中國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국토가 中國에 비하여 좁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世宗 12年 閏 12月 11日에는 형조에서 아뢰어 유배지방을 다음과 같이 정한 바 있었다.

京城 留後司 京畿에서의 三千里는 慶尙 全羅 平安 咸吉道 안에서 25息 밖에 있는 여러 고을, 二千里는 慶尙 全羅 平安 咸吉道 안에서 20息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정하소서¹⁸⁾

16) 秋史는 憲宗 6年 9月 2日 濟州島 大靜縣으로 流配되어 同王 14年 12月 6日까지 流配生活를 했는데 憲宗 6年 9月 27日에 濟州 禾北鎮에 도착하여 10月 1日에 大靜의 宋啓純의 집에서 謫居, 후일에 姜道淳의 집으로 移謫하여 倉川村으로 옮겼다. 秋史와 서울 本家와의 연락은 忠淸道 江景里에 장사하러 다니던 梁鳳信이라는 船主가 자진하여 맡아 주었다고 한다.

17) 大明律直解 五刑名儀

18) 世宗實錄 卷 50, 12年 윤 12月 11日

라고 형조에서 奏達하자 王은 그대로 따른 바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배를 갈 때에 배소로 직행하지 않고 曲行하여 거리를 계산한 때도 있었다.

正祖 卽位年 10月 6日에 義禁府에서 啓言하기를 機張縣으로 유배되는 三千里 定配罪人 金若行을 三千里 유배의 전례에 따라서 다시 배소를 정하여 曲行하라고 하명하였으니 서울에서 機張까지는 九百七十里이고 機張부터 江原道 平海郡까지, 平海郡에서 咸鏡道 端川府까지의 거리를 합하면 三千里가 되므로 曲行하는 과정을 계산하여 端川府로 押付하기를 請했는바, 王은 이를 율허하고 하교하여 이거리를 九百里 땅으로 유배시킨 것은 流三千里의 뜻이 없으므로 曲行케 하여 유형수 金若行으로 하여금 조정에 流三千里의 제도가 엄연히 있음을 알게 하고 또 曲行할 때에 고통을 받게 함이라고 한 예도 있었다.¹⁹⁾

流刑에는 遷徙, 付處, 安置의 세 가지가 있었는데 遷徙는 ‘遷離鄉土千里外’로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強制로 移居시키는 형벌이다. 遷徙는 侵害的 性格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고, 遷徙로써 가장 가혹한 것은 全家徙邊으로서 이것은 온가족이 僻地로 강제 이주되는 유형이었다.

付處는 中途付處의 준말인데 付處는 유배에 처한 罪人에게 그의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배소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정하여 지내게 하는 것을 이룬 것인데 付處는 官員에게 科하는 형이었다.

또 儒生에 대하여도 官員에 준하여 付處의 형에 처한 경우도 있었으니 中宗時代의 儒生인 尹衡은 外方에 付處된 바 있었다.²⁰⁾

安置는 배소의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으로서 王族 顯職에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安置에는 本鄉安置, 絕島安置, 圍籬安置 등의 세 가지가 있었다.

本鄉安置는 罪人의 고향에 안치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太祖 元年 7月 28日에 太祖는 長文의 왕명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고려 말기에 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 처음으로 화단을 일으킨 자 56名에게 5등급으로 나누어서 형을 내렸는데 本鄉安置는 가장 격미한 형에 속하는 것이었다.²¹⁾

絕島安置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安置시키는 형이다. 大典通編에는 絕島일지라도 官이 지키는 곳이 없으면, 罪人의 流配地로 편입하여서는 안 되고 黑山島 등 극악한 지방을 特

‘京城 留後司 京畿三千里 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 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 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19) 日省錄 43 正宗卽位年 丙申 10月 6日

20) 中宗實錄 卷11, 5年 4月 7日

21) 太宗實錄 卷1, 元年 7月 28日

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배시켜서는 안 되고 濟州의 三邑에도 죄명이 특히 중한 자 이외에는 유배시켜서는 안 된다²²⁾고 했다.

圍籬安置는 죄인을 謫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두는 형인데 중죄인에게, 그리고 당쟁을 통한 정치범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탱자나무는 全羅道와 濟州島에 많았으므로 이 형을 받은 사람은 대개 전라도의 沿海의 섬과 遠惡地 濟州島로 많이 갔다.

대체로 流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배가는 자는 그의 妻妾을 따라가게 하고, 아비나 할아버지, 손자 등이 따라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圍籬安置만은 家屬과 함께 등거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가혹한 流刑이었다.

朝鮮朝의 당쟁으로 인하여 流配되는 경우 대체로 絶島安置, 圍籬安置 등이 지배적이었다.²³⁾ 秋史는 圍籬安置의 형을 받았는데, 이는 그만큼 秋史를 重罪人視 하였기 때문이었다.

4. 作品 考察

前述한 바와 같이 時·僻 堂爭에서 초연했었으나 時派인 安東金氏의 勢道政治의 희생으로 純祖 30年(1830)에 일어난 尹尙度獄이 당시 조작극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憲宗 6年(1840)에 그 獄事가 再論되어 秋史는 死地에 몰린 위기에 島配로 流刑되는 것이니 秋史一門의 困辱은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秋史의 9年間 濟州島 流配生活은 자신에게 생애의 불행이었지만 濟州島民에게 通鑑, 論語 孟子 등을 학습하는 것이 고작이던 것이 秋史에게서 四書五經은 물론 書道와 天文 및 算數學까지도 교육을 받게 되어 당시 濟州島 儒生들은 비로소 科學的인 實事求是의 학문을 접하게 되어 濟州島의 近代學問에 至大한 영향을 준 바가 있다.²⁴⁾

秋史는 絶海孤島인 유배지 제주도에서 入島하여 제주 禾北嶺에 첫발을 들여 놓고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감회를 다음과 같이 7言絶句로 표백했는데, 그의 ‘荒寒寂賓之濱’에서의 유배 생활은 이처럼 시작하여 9年間 流刑囚로서 形言難測의 千辛萬苦의 苦役을 지내게 되었다.

22) 大典通編 刑典 推斷

23) 筆者가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에서 朝鮮朝의 人名 중 700명을 대상으로 朝鮮朝時代의 流配者數를 調査 分析해 본 결과 朝鮮朝時代의 流配地는 國內 245개처로 나타났고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流配地인 濟州의 한 地域에 流配된 수 34명으로 가장 많고, 거의가 絶島安置, 圍籬安置 등이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하여 濟州는 流配地로서의 代表地域임을 確言할 수 있겠다. (拙稿, 李朝流配文學研究. pp.60~64.參照)

24) 濟州教育通史, 제주도교육위원회, 1974. p.82.

金泰能, 秋史 金正喜의 大靜謫居와 그 영향, 제주도, 제 37호, 1968. 참조.

瀛洲禾北鎮途中

村裡兒童聚見那
逐臣面目可憎多
終然百折千磨處
南極恩光海不波

마을 안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고는
귀양살이 신하의 얼굴 가증도 하지
마침내 죽을 고비 넘어서 다다른곳
남극에 미친 은혜, 파도도 잔잔해

이 7言絶句 ‘瀛洲禾北鎮途中’은 前述한 바와 같이 尹尙度獄의 再論에 연좌되어 濟州島 大靜縣에 圍籬安置되어 9年間 유배생활을 하게 된 秋史가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정신적, 狀況을 表출한 것으로, 그의 濟州流配漢詩의 첫작품이다.

이 7言絶句 ‘瀛洲禾北鎮途中’은 그 承·轉句에선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身上的 自歎을, 結句에선 戀君에의 情을 表백하고 있음을 쉬 이해할 수 있다.

流刑囚의 제주도 유배 海路는 반드시 추자도를 경유하는 성싶다.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는 500여리, 추자도 이북엔 往往 섬이 있어 비록 배가 표류하더라도 추자도에 와 닿을 수 있으나 이남은 絶海島嶼로 표류하면 中原이나 倭國에 닿는 외에는 茫茫積水뿐으로 舟行者는 추자도로써 남쪽 경계를 삼는다²⁵⁾ 고 한다.

이른바 제주도하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環海天險의 섬으로 입지적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뿐만 아니라, 平常人의 제주도 왕래가 至難한 일이었다면 流刑囚들의 제주도 入島는 生사간의 문제이었을 것이다.

제주도 유배 가는 뱃길에서 秋史는 자신의 毅然한 眞面目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당시의 정경을 전해 주는 門人 閔奎鎬(1836 ~ 1878)의 표현을 빌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옛날의 탐라국으로 바다가 그 사이에 있는데, 매우 크고 또한 바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항상 열흘이나 한달을 잡았었다. 공이 막 건너가는데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중에 천둥과 번개가 곁들여 죽살이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뗏을 잃어 부등켜 안고 부르짖으며 도사공 역시 다리를 떨며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공은 곳곳이 뱃머리에 앉아서 詩를 지어 높게 읊으니 소리는 바람과 파도에 지지 않

25) 濟州至此水程可五百餘里 而楸子以北則往往有島嶼 故雖漂風而勢可依泊楸子 以南則絕無島嶼西漂則或可至中原 東漂則或可倭國 而其外則浩浩茫茫積水而已 故舟行者以楸子 以南爲戒矣 (林梯 南溟小乘, 1578)

았다. 그리고 나서 곧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길 「도사공아, 힘껏 키를 잡고 저 쪽으로 가라」고 하니 배는 이에 빠르게 달려서 아침에 떠났는데 저녁에 제주도에 닿았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크게 놀라서 날아 건너 왔다고 하였었다.²⁶⁾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험난한 제주도에의 유배 海路를 지나 무사히 入島한다는 것은 그만큼 流刑囚의 처지이면서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고 感君恩해 하는 심정을 바로 結句에서 표백한 것이다.

9年이라는 기나긴 유배생활을 뒷박만한 한간 방에 갇힌 채 보내야 하는 그忍苦의 생활은 筆舌로 다할 수 없는 괴로움이 따랐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모질기로 자부하던 秋史로 하여금 땅을 치고 통곡하게 한 큰 슬픔은 夫人 禮安李氏의 죽음이었다. 유배생활 2年만에, 곧 憲宗 8年(1842) 11月 乙巳朔 13日 丁巳에 부인이 他界했다는 슬픈 부고를 받는다. 곧 亡妻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없었고 梟圍罪人이기에 한 지아비로서 亡妻의 葬禮도 치루지 못한 괴롭고 슬픈 心思를 다음과 같이 표백하였다.

配所輓妻喪

那將月姥訟冥司
來世夫妻易地爲
我死君生千里外
使君知我此心悲.

어떻게 月姥께 하소를 하여
서로가 내승에 바꿔 태어나
천리에 나 죽고 그대 살아서
이 마음 이 설음 알게 했으면.

來世에 부부가 서로 바꿔 태어나서 내가 죽고 그대가 살아서 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가 한 번 겪어야 비로소 짐작하리라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와하는 情感을 노래한 七言絶句 ‘配所輓妻喪’이다.

秋史는 부인이 他界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死後 7日 뒤에 다음과 같은 諺簡을 써서 부인에게 부쳤다.

26) 阮堂先生全集 卷首, 阮堂金公小傳 ‘濟古耽羅也 瀛海在其間甚鉅 又多風 人涉恒計旬月 公方涉也 大風濤中 作霹靂 死生俄忽 舟中人 皆喪魄抱號 篙師亦股栗不敢前 公凝然坐柁頭 有時高詠 聲與風濤 相上下 因舉手指某所曰 篙師力挽柁向此 舟乃疾 朝發夕至濟 濟之人 大驚以謂飛渡也’

전번 편지 부치는 것이 인편에 한 가지로 갈 듯하였으며 그사이 새본관 오년편에 녁뉴의 편지 보오니 이 사이 년하야 병환을 떼지 못하시오 일양 진퇴하시나 보오니 받서 여러 미류 하오며 근년법백에 오작하와 겨오시게삼. 우특덩을 자시나 보오니 그 약에나 케히 동덩이 겨시올지. 원외서 심녀초절하옵기 형용못하게삼. 나난 전편 모양이오며 그져 쇼양으로 못 견디게삼. 감쇠를 아니 보내옵길 업서 이리 보내오나 그 가난 모양 참측하오니 깨등에 또일 층 심회를 편치 못하게삼. 급히 떠나 보내기 다른 사연 질게 못하압. 임인지월 심팔일 상 장 27)

기막힌 流配諺簡이다. 부인의 병환을 걱정한 지아비의 정감이 질게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부인의 他界를 전혀 몰랐던 秋史로서 뜻밖의 그 訃音을 받고서 그 얼마나 절통했던가. 그의 ‘配所輓妻喪’은 바로 이런 情況 속에서 지어진 것이었다. 이 悼亡詩엔 存園罪人으로서 상처한 恤寡孤獨의 정감이 질게 표현되어 있음을 본다.

한편 秋史는 生離死別한 아내의 죽음, 그 죽음 걸으로 달려가는 것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은 통한을 ‘夫人禮安李氏哀逝文’에서 다음과 같이 표백하고 있다.

아아, 나는 著網가 앞에 있고 산과 바다가 뒤를 따랐으나 아직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한낱 아내의 죽음에 놀라 가슴이 무너져서 마음을 견잡을 수 없으니, 이 어쩔 까닭인가. 아아, 대체로 사람마다 죽음이 있거늘 홀로 부인만 죽음이 있지 않을 수 있으리요만 죽을 수 없는데 죽은 까닭으로 죽어서 지극한 슬픔을 품게 되었을 것이고 기막힌 원한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뿔어 내면 무지개가 되고 맺히면 우박이 되어 족히 孔夫子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기에 著網보다도 더 심하고 산과 바다보다도 더 심함이 있는가 보다. 28)

이 얼마나 애절한 亡婦辭이며 流配祭文인가. 이 무렵 秋史의 喪妻를 위로하러 草衣가 제주 바다를 건너가 지극한 友誼를 보인다. 29)

秋史의 7言絕句 ‘配所輓妻喪’을 輓歌, 輓歌詩를 대신하는 悼亡詩라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으며 그 심각미와 절실미가 斯界의 上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언제든지 懇懇惻惻하게 인정의 깊은 밑바닥을 찌르는 듯한 정감을 표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秋史의 정신적 狀況의 일면인 人間的인 통한과 自歎을 보

27) 文學思想 (76) 1979.1. p.335.

28) 阮堂先生全集, 夫人禮安李氏哀逝文 ‘嗟嗟乎 吾桁楊在前 嶺海隨後 而未嘗動吾心也 今於婦人之喪也 驚越遁剝 無以把握其心 此曷故焉 嗟嗟乎 凡人之皆有死, 而獨人之不可有死 以不可有死而死焉 故死而含至悲茹 奇冤將噴而爲虹 結而爲雹 有足以動夫子之心 有甚於桁楊乎 嶺海乎’

29) 阮堂先生全集 卷5에 草衣에게 보낸 書簡(與草衣書)이 38 통이나 수록되어 있음을 볼 때 雲水行脚에 나선 草衣와 秋史는 극진한 友誼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여 주고 있다.

당쟁으로 인한 宦海風波로 官府에서 쫓겨 絕海孤島로 유배당한 많은 유배인사들에게 世事를 떠난 隱過逃避에서 오는 自然에의 沒入에 젖은 경향이 있었듯이 秋史도 유배생활 동안 異域他關인 제주의 자연을 즐겼고, 그것을 통하여 유배생활의 千辛萬苦를 이겨낼 수가 있었으니, 실로 제주의 자연을 사랑한 바가 되었고, 한라산의 靈氣는 실로 탐라의 초목에만 뭉쳐서 부러워 하기도 했던 것이다. (漢拏靈異磅軋之氣 鍾在草木而已耶) 그 중에서도 제주의 水仙花에 賞讚을 아끼지 않았다.

水仙花

一點冬心朵朵圓
品於幽澹冷梅邊
梅高猶未離庭砌
清水眞看解脫仙。

소복한 꽃대는 송이마다 동그란데
그 맵씨 깨끗하고 그윽하고나
매화는 고매하나 섬돌을 못떠나고
맑은 물에 보아하니 바로 신선이?

碧海青天一解顏
仙緣到底未終塵
鋤頭棄擲壽常物
供養窓明几淨間。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시름 가지고
너와의 선연은 다할 수 없어
호미끝에 버려진 예사론 너를
오롯한 창가에 놓고 기른다.

호미 끝에 버려진 예사로운 水仙花를 얼마나 賞讚하고 있는가 이 七言詩 ‘水仙花’에서 선비의 마음 가짐을 느낄 수가 있다. 脫俗的 空間을 그려 주었다.

수선화는 제주 섬 곳곳에 많이 자란다. 골짜기와 발마다에 무성하게 자라는데 島民들은 이것을 잡초로 여겨 보리같이 무렵 호미로 베어버린다. 秋史는 水仙花를 賞讚하면서도 그 內面에 水仙花의 高孤한 眞價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自歎하고, 바로 자신의 유배적 狀況에 직면한 불운한 처지를 水仙花에다 비유하고 있음을 쉬 짐작케 한다. 그리고 山野를 뒤덮어 구름같이 피어나는 白雪같은 水仙花의 꽃향기에 취하고 머리통만한 줄기를 자르면 甘露樹의

시원한 樹液으로 목을 축이면서 외로운 유배생활을 곳곳하게 이겨내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秋史는 流配生活 중에 亡妻喪을 당하는 不連을 겪었다. ‘配所輓妻喪’과 ‘水仙花’ 등을 통해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自歎을 표백하면서도 前者에서는 生成一如같은 時間觀을 詩心에 나타냈는가 하면 後者에서는 脫俗的 空間을 그려 주었다.

한편 秋史에게 주어진 園籬安置란 형극이요, 제약된 場所로, 그의 自然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七言絶句 ‘村舍’, ‘大靜村舍’ 등은 바로 이 점을 그려 준 것이다.

村舍

數朵鷄冠醬額東
南瓜蔓碧上牛宮
三家村裡徵花事
開到戎葵一丈紅。

맨드라미 두어줄기 장독 등에 피었고
소막지붕에 호박넝쿨이 뻗었네
집 세채 있는 시골에 화사를 이루었으니
피어오른 해바라기 열자 높이 붉었구나.

‘村舍’의 風景이 한층더 靜態化해 보여 東洋畫의 畫幅처럼 펼쳐져 그의 絶品 ‘歲寒圖’ 속에 그려진 松柏後凋의 節操를 함께 하는 草家를 충분히 연상케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는가.

비록 유배당한 처지면서도 이러한 自然界로서의 外物인 村舍(園籬安置된 환경)를 어떻게 수용·융화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秋史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아니며, 내 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내가 있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하자면 一切의 主觀(人欲)이 끼어들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自然에의 沒入에 짓게 되고, 自然을 사랑하게도 되며 유배생활에 직면한 불안한 정신적 狀況이었다고 해도 和靜을 구할 수 있을 것이리라.

제주도는 絶海의 孤島이다. 척박한 땅과 모진 바람, 비가 많은 기후에,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섬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지척도 알 수 없다.

고려 원종 14年(1273)에 三別抄 싸움의 격전지로서 제주도는 초토가 되다시피 했었다. 元의 세력이 진주하면서부터 갖은 횡포며, 충렬왕 원년부터 원에서 죄인들을 이 곳으로 유배시켰고, 그 해 100여명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데³⁰⁾ 이는 異國의 죄인들이 사는 流配地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부터 정치적 망명자나 世事に 뜻을 버린 자 또는 정치적인

30) 金錫翼, 耽羅紀年 ‘忠烈王元年夏四月 元流賊百餘人來’ p.16.

죄인들이 들어와 사는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유배지가 되다시피 했다.³¹⁾

七言絕句 ‘七羅’는 三別抄를 討伐한 후 충렬왕 때 元에서 제주도에 達魯花赤를 두고 통치했는데 그 유적을 찾을 수 없음에 無常함을 표백하였다.

七 羅

駑牟於古亦耽浮
 儒李城空枕梅頭
 要足九韓風土志
 魯花遺蹟若爲求

옛적엔 담모, 탐부라 했는데
 유리성은 텅비어 바닷가에 둘러있구나
 구한의 풍토지 많기도 하여라
 노화의 유적 어디서 찾으리.

곧, 達魯花赤의 유적을 懷古하려 詩心을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적을 찾을 수 없음에 無常感에 젖고 있다고 하겠다. 유배적 狀況에 직면한 정신적 狀況 중에서 가장 질게 그림자 지어지는 것은 지난 날의 화려한 權座에서 君王의 버림과 政敵에게 미움을 사서 失勢를 하여 유배당하므로써 느껴지는 虛無感인 것이다. 이러한 虛無感을 魯花유적을 빌어 秋史는 자신의 虛無感을 표백하였을 것이다.

遠浦歸帆

江南水退秋光淺
 風柳參差萬絲卷
 鷺鷥在梁鳧在渚
 蕩蕩扁舟去家遠。

강남에 물줄고 가을빛 얇은데
 만갈래 버들개지만 바람에 나부껴네
 원앙새·오리떼 물가에서 노닐고
 일엽편주 거침없이 고향집 멀리 떠나네.

宦海風波로 官府에서 쫓겨난 秋史, 그것도 死刑에서 減死되어 유배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政爭의 나날들과 두고 온 가족, 그리고 喪妻의 비아픔, 朋黨들의 회포 따위가 흐르는 물결처

31) 앞의 注 13)을 參照

럼 流刑囚으로서의 秋史의 心像 앞에 지나간다. 그런 것이 지나가면 곧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진 자기 자신의 외로움은 무엇인가 등등을 꼼꼼히 따져본다.

絕句의 ‘蕩蕩扁舟去家遠’은 바로 秋史의 처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又陵釣室

垂竿何人無意來
晚風落葉何颼颼
了無得失動微念
況有興亡生遠哀

낚대 드리우고 그 낚 오고 싶잖으랴
낙엽지는 늦바람 어이 그리 시원한가
끝내 득실엔 천연 생각이 없거니
하물며 세상 흥망에 깊이 슬퍼하리.

朝鮮朝의 당쟁을 통하여 政治人, 文臣學者들의 현실도피사상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현실도피적 사상을 흔히 隱遁思想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逃避的 隱遁이 아니라 超世的 隱遁이 있어 왔음을看過할 수 없다. 이런 超世는 山林이나 江湖로의 도피나 世間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俗世에 살거나 仙境을 찾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관심이나 名利에 관심이 없고 非是利害를 잊고 살려고 한다.³²⁾

당쟁으로 인해 梟園罪人이 되어 絕島에 유배당하자 隱遁逃避하는 심정에서 自然에의 沒入에 젖다가도 제 나름대로 出仕, 流配, 隱遁, 復權 등등 得失을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다.

秋史의 경우 園籬安置라는 狀況이 너무도 기막힌 死路와도 같은 험난한 일이었기에 이른바 ‘了無得失動微念’이었고, ‘況有興亡生遠哀’의 心情 그것이었다.

起, 承句에서 自然에의 沒入을 노래하다가 轉, 結句는 雙關을 지어 流配的 狀況에 직면한 정신적 狀況인 自歎을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商山四皓

憶昔采芝有園籬
猶被雷侯迫之起
莫將名聲落人間
隨此橫圖卷秋水.

32) 李鍾殷, 國文學과 道敎思想, (李丙曠先生周甲紀念論叢), 1981.10.30. pp.389~390. 參照

옛적에 지초캐던 東園公·綺里季도
 子房의 꺾박에 못견더 일어났지
 명성을 위해 세상에 나가지 말고
 이 그림따라 秋水篇을 보게나.

中國의 故事를 引據하면서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자신의 安分과 守分을 통해서 知足을 넘어선 悠悠自適의 경지를 표백하고 있다.

起句에선 자신을 지초캐던 漢의 商山四皓 중의 東園公·綺里季 두 사람으로 비유하였고, 承句에선 政敵의 모함을 漢의 張子房의 꺾박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어 轉句에선 당쟁으로 인하여 政敵에게 갖은 모함과 미움을 사서 유배당한 처지가 되고 보니, 선비로서 그토록 지키고 믿었던 正名, 王道, 德治, 禮治 등을 비롯한 大義와 名分도 마치 헌신짝처럼 땅에 떨어진 느낌에 젖게 마련, 그래서 다시는 ‘莫將名聲落人間’이라 하며 守分을 다짐한다.

結句에선 轉句의 守分 避世의 哲理 속에서 스스로 高踏을 추구해 나간다. 現實과 名利에 관심을 갖기보다 江湖를 즐겨 莊子 秋水篇과 벗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不運한 유배생활 속에서도 自適하는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剡溪尋友

王戴溪頭小隱仙
 漁翁引上需溪船
 幾迴卷釣思歸去
 又爲蘋花往一年

옛 隱士 王子猷·戴安道가 놀던 시냇가에
 고기잡이 노인이 需溪로 배를 끌며
 몇번이나 낚대 거두고 돌아가려 했는가.
 마음껏 잊지 못해 또 한해 머무렀네.

秋史는 園籬安置를 마치 ‘又爲蘋花往一年’의 심정으로 9年을 지낸 것이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유배생활을 통한 修身時分의 생활이요, 적극적으로는 비록 不遇하게 유배당한 처지였음에도 선비의 道를 찾고 즐긴 생활이었다.

요컨대 9年의 유배생활을 한마디로 苦行과 艱難이 연속되는 不遇한 千辛萬苦의 생활이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도 自然에의 沒入으로 悠悠自適할 수 있었던 것은 孔子의 말대로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의 경지이며 知之者를 뛰어 넘는 悠悠自適한 樂之者의

경지 그것이었다.

起·承句에서 故事를 引據하여 好之者의 性情을 표백하였고, 轉·結句에서 知之者나 好之者를 뛰어 넘는 悠悠自適한 樂之者의 性情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自然에의 沒人은 自然隨順의 人生觀으로 유배생활을 지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이것은 安分과 守分을 통해서 知足을 넘어 悠悠自適, 樂道에 서고, 無辱에 노니는 竹林, 江湖思想과 연결이 이루어진다.³³⁾

그리하여 孤高寒士의 苦惱가 낀 秋史의 流配漢詩가 오히려 風流로 비친 異色을 볼 수 있다. 참담한 정신세계를 悠悠自適하고 안온한 江湖의 세계를 승화시킨 점에서 秋史의 風度を 엿볼 수 있다.

III. 結 論

秋史의 濟州流配漢詩 10篇을 중심으로 試考를 전개했다.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秋史는 博學했기에 그의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셈이지만 그의 文學的 位置는 아직도 未定立의 상태이다. 最近에 筆者가 展開한 예비 연구에 의해 차츰 이 方面의 연구업적이 현저해지고 있다.

2. 憲宗 6年(1840) 9月 安東金氏의 勢道下에 조작된 尹尙度獄의 再論으로 秋史는 55歲이던 人生의 黃昏期에 梟團罪人으로 9年間 濟州島 大靜縣에서 園籬安置의 最惡의 생활을 한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個人的으로는 不遇한 일이었지만 그러한 流配의 狀況에 직면한 千辛萬苦의 괴로움은 그것을 카타르시스하기 위해서도 주옥같은 流配文學을 창작케 된 중요한 契機가 되어 주었다.

3. 秋史는 經史를 위주로 漢文修業을 했지만 實學을 체득하여 思想的 기반을 確固히 했고, 그가 일생을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生父 魯敬을 따라 25歲時 燕行하여 淸國의 鉅儒인 翁方綱, 吳嵩梁, 阮元 등과 學緣을 맺어 交流했고, 국내에선 許小癡, 申緯, 權敦仁, 草衣 白坡 그리고 정약용에 대한 침앙들로 流配 知識人의 화려한 교류를 나타낸 점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4. 秋史가 남긴 流配文學 작품 중 流配漢詩는 그 수가 상당한 것으로 整理되나 七言絶句 10篇을 우선 가려내어 本稿의 試考로 展開하였던 바 流配文學의 一般의 特性인 戀君, 自歎, 隱遁逃避 등이 如實히 反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金田郷, 時調에 나타난 杜詩攷, (李丙曠先生周甲紀念論叢) 1981.10.30. p.86.

5. 七言絕句 ‘瀛洲禾北鎮途中’은 流配의 狀況에 直面한 自歎과 感君恩의 情을, ‘配所統妻喪’은 流配地에서 亡妻의 訃音을 받고 恤諒寡孤獨의 悲痛과 自歎을, ‘水仙花’二篇은 隱遁逃避에서 오는 自然에의 沒入을 통하여 水仙花를 賞讚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自歎을 하고 있다. ‘村舍’는 자연에의 몰입을 통한 和靜을 ‘七羅’는 魯花遺蹟을 빌어 秋史 자신의 虛無感을, ‘遠浦歸帆’은 自然에의 沒入을 통한 江湖에 대한 사랑을, ‘又陵釣臺’는 自然에의 沒入에 젖은 한편 自歎을, ‘商山四皓’는 流配의 狀況에 직면하면서도 安分과 守分을 통해서 知足을 넘어선 悠悠自適의 경지를, ‘剡溪尋友’는 自然隨順을 통한 悠悠自適, 樂道 등을 표백하고 있다.

6. 이제 이러한 試考에 이어서 秋史의 流配漢詩研究를 본격적으로 전개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① 秋史의 漢詩가 지닌 文學性.
- ② 秋史의 流配漢詩와 流配簡札, 濟配諺簡, 流配祭文 등의 關聯性.
- ③ 秋史의 文學性이 지닌 총체적인 양상.
- ④ 秋史의 流配生活이 濟州文化에 끼친 영향.
- ⑤ 秋史의 韓國文學上의 位置.

參 考 文 獻

1. 阮堂先生全集(上)
2. 阮堂先生全集(下)
3. 李鍾恒, 韓國政治史, 博英社, 1963.
4. 成樂熏, 韓國党争史, (韓國文化史大系Ⅱ)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5. 崔完秀, 金秋史評傳, 知識產業社, 1976.
6. 大明律直解
7. 日省錄
8. 太宗實錄
9. 世宗實錄
10. 中宗實錄
11. 憲宗實錄
12. 大典通篇
13. 新丘出版社, 韓國人名大事典
14. 林梯, 南溟小乘
15. 金錫翼, 耽羅紀年
16. 李鍾殷, 國文學과 道教思想(李丙疇先生周甲紀念論叢) 1981.
17. 金卍卿, 時調에 나타난 杜詩攷(李丙疇先生周甲紀念論叢) 1981.
18. 拙稿, 秋史의 悼亡詩와 祭文考(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1980.
19. 拙稿, 秋史의 濟州流配書翰攷, 아카데미論叢 제 7집, 世界平和教授協議會, 1980.
20. 拙稿, 秋史의 濟州流配謄簡攷, 語文教育, 제 27 호. 1980.

— Summary —

Chooosa's Exile Chinese Poetry Written in Jeju-do.

Soon-pil Yang

Chooosa, Kim Jung-hee wrote many Chinese poems when he was banished to Jeju-do. In this study, his ten poems are mainly examined, and the contents of the paper are summed up as follows.

1. People judge Chooosa in many ways because of his wide knowledge, but his literary position is not yet set up. To my joy, through my recent pre-study of Chooosa, his literary accomplishments are more and more clarified.

2. Chooosa was banished as a transported criminal to the Dae Jung-hyun of Jeju-do at the golden age of 55 for 9 years, when it was in the reign of King Hun-jong, September in 1840. This exile life made him misfortune in private, but on the other hand, the adverse circumstances with all sorts of hardships and privations gave him a good moment of writing a jewel of exile literature.

3. Although Chooosa studied Chinese literature, making the happy event the prime object, it should be noted that he form the solid foundation of thought, learning practical science. Going to China (In those days this country was called 'Chung') with his father had a great effect on his life. There, he met many scholars and kept literarily company with them, Ong Bang-gang, Oh Seung-yong and One-won. He also made acquaintance with a number of intellectuals, Hur So-chi, Sin-woi, Choi-i, Baek-pa and Jung Yak-yong.

4. There are many exile Chinese poems which Chooosa has written, but ten poems composed of a quatrain with seven-word lines are primarily selected and studied here. These poems hav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n exile literature, for example, yearning after Kings, grieving to onself and living in seclusion.

5. The main contents of the poems, quatrain with seven-word lines are like this; a poem titled 'Young-joohwabookjindojoong' is about grieving to onself and adoring Kings under the exile circumstance, 'Baesomanchusang' is about pathos and grief after one's wife's death in an exile place, 'Soosunhwa', two poems, about admiring daffodils through falling into nature in the sequestered life, comparing oneself to the daffodils, 'Chonsa', about harmonized tranquility through falling into nature, 'Tak Ra', about Chooosa's nothingness, 'Onepoguibeom', about love of nature through falling into nature, 'Wooreungiodae,' about grieving to oneself with falling into nature, 'Sangsansaho', about the nature of deliberation inspite of being under the banished circumstances, 'Yeomgaesimwoo', about deliberation and adjustment to nature.

6. Now, on the basis of this Knowledge, Choo's exile Chinese poems will be earnestly examined. Their direction toward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literary nature of Choo's Chinese poems.
- (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exile poems, Chinese exile letters, Korean exile letters and exile funeral ode.
-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spects lurking in the literary nature of Choo.
- (4) Choo's influence upon the culture of Jeju-do.
- (5) Choo's position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literature.